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박주영-염기훈 '투톱' 그리스 골문 '폭격'

박지성·이청용 날개… 기성용·김정우 허리

이동국 조커 가능성 … 베스트 11 구상 끝

"베스트 11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도 같고…"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은 오는 12일(이하 한국시각) 오후 8시30분 포트엘리자베스에서 열릴 그리스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을 나흘 앞뒀던 8일 선발 라인업 구상을 묻는 말에 모호하게 대답했다.

'확정됐다면 누구냐고 물을 테고 안됐다고 하면 언제까지 할 계획이냐'라는 질문에 쏟아질 것에 대비해 방어막을 친 것이다. 하지만 허정무 감독은 이미 그리스와 1차전 베스트 11 구상을 마친 상태다.

"경기 당일까지 고민하겠다"고 연막을 피웠지만 선발로 출격할 멤버가 사실상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허정무 감독은 그리스를 겨냥한 모의고사로 생각했던 지난달 30일 벨라루스와 평가전 때와 같은 4-4-2 전형을 준비하고 있다.

당시 투톱은 박주영(AS모나코)과 이근호(이와타)가 맡았지만 이근호가 최종 엔트리(23명)에서 탈락하면서 '왼발 달인' 염기훈(울산)이 박주영과 공격의 쌍두마차로 나설 전망이다.

대신 왼쪽 날개는 '캡틴'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서고 같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거 이청용(볼턴)이 변함없이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로 나선다.

박주영과 함께 전담 키커 특명을 받은 염기훈을 허정무 전술의 핵심인 박지성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다.

허정무 감독은 본선 조별리그 2차전 상대인 아르헨티나를 가상한 스페인과 평가전 때는 박주영을 원톱으로 올리고 허벅지가 좋지 않은 박지성의 대타로 김재성(포항)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하는 4-2-3-1 전형을 썼다.

중앙 미드필더진은 검증된 기성용(셀틱)-김정우(광주 상무) 듀오가 호흡을 맞추고 포백 수비진은 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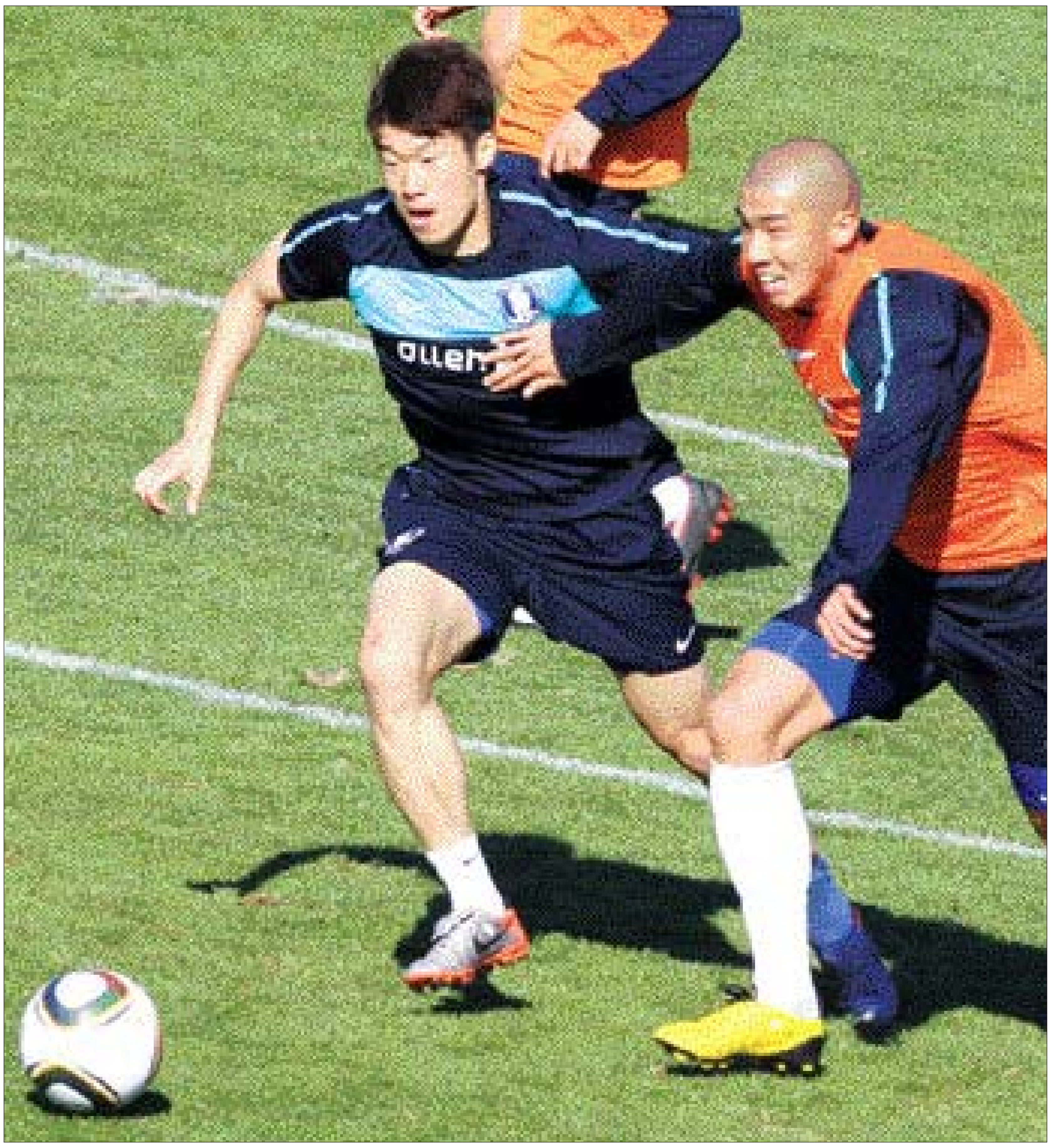
쪽부터 이영표(알 힐랄)-이정수(가시마)-조용형(제주)-차두리(프라이부르크)가 차례로 늘어선다. 붙박이 중앙수비수 조용형이 피부 발진과 통증을 수반하는 대상포진 초기 증세로 이틀 연속 훈련에 불참했지만 그리스와 경기에는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다는 게 대표팀 코치진의 설명이다.

골키퍼는 주전 수문장 이운재(수원)가 2인자 정성룡(성남)의 도전을 받고 있으나 아직 건재해 다시 한번 낙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6일 에콰도르와 평가전 때 허벅지를 다친 후 20일 넘게 재활을 해왔던 공격수 이동국(전북)도 정상 컨디션을 되찾아 그리스와 1차전 때 벤치 멤버로 출격 명령을 기다린다. 허정무 감독은 8일 선수 인터뷰 때 애초 지정했던 이청용 대신 이동국을 시킬 만큼 이동국 기 살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반지의 제왕' 안정환(다롄 스더)과 탈장 수술 여파로 훈련을 하루 쉬었던 베테랑 미드필더 김남일(톰 톰스크)도 교체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려 후반에 기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조용형의 컨디션 저하를 우려해 중앙수비수 백업인 김형일(포항)과 강민수(수원)도 벤치 멤버로 대기한다. 허정무 감독은 9일 선수들에게 하루 휴식을 준 뒤 10일 포트엘리자베스로 이동해 그리스와 일전을 준비한다. /연합뉴스



9일 오후 (한국시각) 남아공 루스텐버그 올림피아파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훈련에서 박지성과 차두리가 공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그리스, 한국전 결전체제 돌입

그리스 축구 대표팀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한국과 1차전을 나흘 앞두고 실전체제에 들어갔다. 그리스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한국과 1차전과 똑같은 시각에 훈련을 치르면서 실전 컨디션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해발고도 0m의 더반을 베이스캠프로 삼은 것도 같은 해안 지역인 포트 엘리자베스에서 열리는 한국과 경기를 수월하게 준비하기 위한 포석이다. 미드필더 흐리스토스 파차조글루(오모니아 니코시아)는 "한국을 이겨야 다른 가능성을 볼 수 있지만 지면 힘들어진다"며 "선수들은 모두 한국과 1차전이 핵심 경기라고 자기 암시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스는 이날 첫 15분 동안만 공개된 훈련에서 스트레칭과 구보만 보여준 뒤 취재진을 내보내고 바로 전술훈련에 들어갔다. 그리스축구협회에 따르면 그리스 대표팀은 오는 11일 오전 포트엘리자베스로 떠나 한국과 경기가 열리는 넬슨 만델라 베이 스타디움에서 결전을 대비한 마지막 담금질을 치를 계획이다. /연합뉴스

초속 10m… 포트엘리자베스 강풍 변수

'익숙하지 않은 낮 경기와 바람은 누구 편일까?'

사상 첫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마침내 오는 12일 오후 8시30분 남아프리카공화국 포트엘리자베스의 넬슨만델라베이 스타디움에서 그리스와 2010 남아공 월드컵 조별리그 B조 1차전을 치른다.

두 팀 모두 이번 대회 첫 경기를 치르는 데다 전력 못지않게 여러 변수가 있어 승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욱 세심한 준비가 요구되는 이유다. 우선 경기 시간이다. 한국-그리스의 경기는 현지 시각으로 낮 1시30분에 킥오프된다.

올해 K-리그에서도 방송 중계를 위해 주말 경기 중 일부를 오후 1시에 벌이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등 유럽 리그에서도 겨울 주말에는 낮 12시30분에 경기가 킥오프되기도 한다. 하지만 주로 야간에 많은 경기를 치러온 프로 선수들에게는 생소한 시간대다. K-리그 감독과 선수들은 경기 킥오프 시간이 달라지면서 무엇보다도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국 대표팀은 지난 8일 오후 베이스캠프인 루스텐버그의 올림피아파크 경기장에서 한 훈련을 그리스전과 같은 시간에 맞춰 진행했다. 이를 위해 평소 오전 8시 시작하는 아침 식사 시간을 9시로 한 시간 늦췄다.

경기 당일 킥오프 시간 90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해야 해 점심을 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포트엘리자베스의 바람도 변수다.

남아공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포트엘리자베스의 기온은 최저 10도에서 최고 23도, 강수확률은 0%다.

날씨가 큰 영향은 주지 않을 듯한데 우려되는 것은 바람이다. 기상청은 12일 포트엘리자베스에 초속 5.3m의 북서풍과 초속 10.3m의 남서풍이 강하게 부는 것으로 예보했다.

포트엘리자베스는 인도양에서 사시사철 불어오는 강한 바람 때문에 '윈디 시티(Windy city)'로 불린다. 게다가 통풍이 잘되도록 뚫어 놓은 공간을 통해 스며드는 바람이 간혹 그라운드에 돌풍 현상까지 일으켜 선수들로서는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필드플레이어들은 공중볼 다툼이나 킥, 골키퍼는 공의 방향 예측 등 바람이 불러올 변수에 애를 먹을 수 있다. 대표팀의 베이스캠프인 루스텐버그는 해발 1200여m. 하지만 포트엘리자베스는 0m의 평지다. /연합뉴스

■월드컵 이모저모

기성용 "8강 진출도 가능" 자신

축구대표팀 주전 미드필더 기성용(21)이 11일 개막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자신했다.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에서 뛰고 있는 기성용은 9일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와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최선을 다한다면 조별리그 통과는 물론 8강 진출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셀틱 홈페이지는 이날 '기성용이 월드컵 모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월드컵 출전을 앞둔 기성용의 소감을 전했다.

기성용은 "올해 셀틱으로 이적한 것이 월드컵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이번이 처음 월드컵 출전이고 아프리카에 가본 것도 처음이라 첫 경기를 앞두고 많이 긴장이 된다. 그러나 셀틱이나 대표팀에서 뛴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셀틱 소속 공격수 요르고스 사마라스(그리스)와 첫 경기에서 만나는 기성용은 "사마라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첫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 만일 진다면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동국 가방 분실했다 되찾아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준비 중인 축구대표팀 공격수 이동국(전북)이 훈련장에서 휴대전화와 방 열쇠 등을 넣어둔 작은 가방을 잃어버렸다가 두 시간여 만에 되찾았다.

이동국은 8일 오후 남아공 루스텐버그 올림피아파크 경기장에서 진행된 대표팀 훈련 뒤 방 열쇠와 휴대전화·아이팟 등을 넣어 둔 축구화용 배낭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이동국은 '누가 챙겼나 보다' 하고 숙소로 왔는데 그의 가방을 가져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장비담당과 팀 연락관이 대표팀을 경호하는 현지 경찰과 함께 경기장으로 다시 갔다. 하지만 이동국의 가방은 찾을 수 없었다. 경기장을 샅샅이 뒤지면서 계속 이동국의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를 시도했는데 결국 인근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다. 경기장에서 가방을 주운 경찰이 경찰서에 가져다 놓고 주인의 연락을 기다렸던 것이다.

伊대표팀 자국서 파스타 공수

'파스타 면 250㎏, 토마토 400㎏, 올리브 오일 200ℓ …'

월드컵 본선 출전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향하는 '파스타의 나라' 이탈리아 대표팀의 비행기에는 선수들 외에도 수 백㎏에 달하는 '귀하신 음식'이 타고 있다.

9일 dpa 통신은 이탈리아 대표팀이 선수들의 선전을 위해 자국에서 직접 파스타 재료를 남아공으로 가져간다고 전했다.

이탈리아에서 남아공까지 비행기로 걸리는 시간은 무려 9시간30분이지만 중요한 경기를 앞둔 선수들에게 집에서 만든 밥을 먹이려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

파스타 재료 외에도 파르마산 치즈 200㎏과 파르마햄 20덩어리 등이 비행기에 실렸고, 요리사도 동행한다.

식사 후 즐기는 커피 한 잔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이를 위해 거대한 이탈리아산 커피 기계와 60㎏의 커피 원두도 아프리카 대륙으로 날아간다.

월드컵출전 선수들 섹스해도 되나요?

아르헨·브라질 허용… 英은 금욕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대회를 앞두고 섹스와 경기력의 상관 관계에 새삼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NBC는 9일 인터넷판에 '섹스는 경기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이번 월드컵을 앞둔 나라별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한국과 같은 B조인 아르헨티나는 선수들이 대회 기간에 아내나 여자 친구 등 '정당한 파트너'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브라질 역시 선수들에게 대회 기간 섹스를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탈리아 출신 파비오 카펠로 감독이 이끄는 잉글랜드는 '금욕의 길'을 택했다. 잉글랜드는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한 차례씩 아내 또는 여자친구와 만남을 허용하지만 밤을 함께 보낼 수는 없도록 했다. 선수들의 숙소에 카메라를 달아 감시할 정도로 엄격하게 '애정 행각'을 통제할 방침이다. 이 기사를 쓴 에밀리 손 기자는 "미국 대표팀의 지침을 문의했으나 미국 대표팀은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